

함평 재생에너지 생산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추진계획

국가발전과 함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도적 선택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농생명·자원순환·전력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선도 수용하고,
국가적 기여를 산업·일자리·주민자산·지속소득으로 전환합니다.

※ 왜 서명운동을 합니까?

- 함평은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부족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와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농생명·자원순환·전력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입니다.
- 이번 서명운동은 국가시설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일회성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안전성과 환경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주민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선도 수용하고, 그 기여를 미래산업과 일자리, 주민소득과 지역자산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 특히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소득 주민 이익공유 주민주도형 분산에너지특구 지역] 을 만들어, 에너지 개발의 성과가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과 함평의 미래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범군민 제안입니다.

※ 함평이 추진하려는 방향

- 함평군 전역을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조정 특구」 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8GW급 생산거점·분산에너지 핵심거점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출발점으로 태양광·수소·양수·조력·풍력, 통합바이오, 변전소·송전선로 등 국가 에너지·자원관리시설의 유치를 적극 검토합니다.

- 100% RE100 전력공급형 첨단산업단지와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함평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기업·고용·세수·주민소득으로 연결합니다.
- AI 스마트팜·스마트축산·스마트수산·화훼 등 미래 농수축산업을 집적하고, 통합바이오·자원순환과 연계해 함평을 서남권 에너지·농생명 전략거점으로 육성합니다.

※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국가 메가프로젝트 핵심거점, 함평 재생에너지 생산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2. 함평을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8GW급 생산기반과 ESS·스마트그리드·국가 송전망을 함께 구축해 주십시오.
3. 함평에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함평의 재생전력이 지역산업과 광주·전남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산지소형 에너지·산업 체계를 지원해 주십시오.
4. 통합바이오·자원순환과 AI 스마트팜·스마트축산·스마트수산·화훼·농생명바이오산업을 연계하고, 군민의 사업 참여와 이익공유가 지속 가능한 지역자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서명운동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 10~11월 집중 추진 일정

기간	핵심 추진내용	주요 결과물
9월 중	추진체계 확정, 서명문·군민용 자료	서명용지·추진계획 확정
10월 22일	함평군 사회단체·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서명 본격화
10월 27일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언론보도, 대내외 선포
11월 3일	군민 설명회 및 결의대회	언론보도, 대내외 선포
11월 12일	서명 집중 완료(목표 군민 90% 이상)	군민 의사 종합 집계
11월 16일	전남광주특별시청·정부·국회 공식 제출	서명용지 일체, 건의서

※ 서명운동과 동시에 준비할 정책·입법 패키지

- 범군민 서명 종합지와 범군민 결의문
- 「함평 재생에너지 생산도시 조성 특별법(안)」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
- 재생에너지 8GW급 생산·저장·조정, ESS·스마트그리드·국가 전력망 기본구상
- 주민주도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지산지소 에너지 운영구상
- RE100 국가산업단지·기업수요·광주·전남 첨단산업 연계구상
- 통합바이오·자원순환·미래 농수축산·주민참여·이익공유 및 지역자산화 기본안

※ 11월까지의 목표

- 1) 2026년 11월 12일까지 범군민 서명과 결의문을 종합하고, 특별법 초안과 함평 국가 메가프로젝트 기본구상을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합니다.
- 2) 함평군민 90% 이상 서명 완료로 압도적 의지를 표명합니다.

※ 군민 참여의 원칙

함평군민은 국가시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적 기여를 산업·일자리·주민자산·지속소득으로 전환하는 대한민국 1호 선도실증 모델을 지향합니다.

직접 영향지역의 권익과 법정 보상은 별도로 보장하고, 군민은 에너지 생산·사업 참여·투자·이익공유의 주체가 되어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지역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남기도록 추진합니다.

함평군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특구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